

가을...문학에 스미다



茶兄 김현승 문학대전

18일 광주 양림동 '오웬 기념각'

가을은 문학의 계절이다. 독서도 좋지만 문학행사 현장을 찾아 문인들의 숨결을 느끼는 것도 좋다. 이 가을에 떠오르는 남도의 대표 문인들은 누구일까?

가을과 커피의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과 '선학동 나그네'의 미백(未白) 이청준(1939~2008)은 남도가 자랑하는 작가다. 이들 두 문인은 작품으로나 인품으로나 많은 후배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별들이다.

광주와 장흥에서 각각 김현승과 이청준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작가를 기리는 문학제로, 남도발 문학의 향기가 전국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18일(오후 2시) 광주 양림동 '오웬 기념각'에서 열리는 2014다형문학대전은 김현승 문학의 연구와 확산에 초점을 뒀다.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다형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형 김현승의 문학세계' 출판 기념식과 시 낭송, 노래, 학술발표 순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출판 기념식은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과 평론을 묶은 단행본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그간 다형의 문학을 연구해 발표한 평론과 논문이 수 백편에 이르지만 시인이 타계한지 40여년이 지나면서 연구물도 사라져가는 추세다. 그러나 책 발간을 계기로 다형의 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 이어 다형의 시 낭송과 성악가들의 노래가 불려진다. 다형시낭송회 회원들이 대표작 '눈물' '절대고독' 등을 낭송하고, 바리톤 정찬경 씨와 소프라노 김혜미 씨가 각각 '플라타너스'와 '가을의 기도'를 부른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학술발표는 다형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고찰이 있을 예정이다. 문학평론가 김중희 경희대(국어국문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발표는 다형 문학의 의미와 확산에 초점이 맞춰진다.



광주 양림동 다형다방

간을 계기로 다형의 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 이어 다형의 시 낭송과 성악가들의 노래가 불려진다. 다형시낭송회 회원들이 대표작 '눈물' '절대고독' 등을 낭송하고, 바리톤 정찬경 씨와 소프라노 김혜미 씨가 각각 '플라타너스'와 '가을의 기도'를 부른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학술발표는 다형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고찰이 있을 예정이다. 문학평론가 김중희 경희대(국어국문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발표는 다형 문학의 의미와 확산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청준 문학제

17일 조선대·18일 고향 장흥 회진면 진목리



이청준 문학기행

이야기가 진행된다. 작가의 원작 '조만득씨'를 연출한 윤동찬 감독의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를 감상하고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부는 '내가 읽은 이청준'을 주제로 동향 소설가 이승우 조선대 교수 이야기와 문춘금, 박인성, 이기호, 정용준 작가의 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 '이청준문학관 금기'를 화제 삼아 우찬제, 이수영, 한수미, 최현주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 18일에는 작가의 고향 회진면 진목리에서 이청준을 회고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김영남 시인의 시낭송에 이어

한승원, 히라바루 나오코, 한봉준의 '작가의 교류 이야기',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진다.

문학제의 대미 마지막 행사는 참가자들이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이 된 선학동 마을을 방문,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 길을 걸으며 작가를 추억하는 시간이다.

한편 이번 문학제는 일본 큐슈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효고현 히메지시의 이청준 독자 15명이 참여하는 등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 061-860-0284.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구례향제출품류' 전곡 재현

19일 구례 고택 운조루에서

광주국악방송, 관객 50명 교통 등 편의 제공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출품류' 전곡 재현 행사가 19일 오후 3시 열린다.

국악방송(사장 채치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우리나라 3대 길지(吉地) 중 하나로 꼽히는 구례군 고택 운조루에서 열려 운치를 더한다.

구례향제출품류는 구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현악영산화상(絃樂靈山會上)을 말하며 거문고, 단소, 대금, 피리, 가야금, 해금, 양금, 장고로 편성된다.

구례향제출품류보존회(회장 이철호)가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첫곡인 '본영산'을 시작으로, '세령산', '가락제지', '상현도드리'가 연주되고, 청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악곡인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이 이어진다. 마지막 곡은 남도 민속 선율인 '곳거리'가 흥겹게 연주되는 '별곡'이다.

행사는 국악방송이 인터넷TV,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광주국악방송에서는 이번 공연을 위해 관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 왕복교통 등 관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광주국악방송) 062-602-93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례향제출품류 공연



구례향제출품류 재현행사가 열리는 운조루

문화교류호남재단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시민강좌

21일~11월25일

호남기록문화와 인문학과의 소통을 위한 시민강좌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를 주제로 10차례 시민강좌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리는 강좌는 ▲21일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 공재 윤두서의 삶과 예술'

(이태호 명지대 미교수) ▲23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전쟁'(이이화 역사학자) ▲28일 '망각의 선비를 찾아서'(이종범 조선대 교수) ▲30일 '임진왜란 7년 전쟁 그리고 호남사람들'(김세근 호남역사연구원)를 주제로 열린다.

이어 11월에는 ▲4일 '어우야담을 통해 본 시정세태와 인간 군상'(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센터 소장) ▲6일 '역사,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11일 '조선 선

비의 삶과 오늘의 지상'(이해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3일 '한국근현대사 100년 어떻게 볼 것인가?(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18일 '또 하나의 기록-명숙의 증거들'(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25일 '호남기록문화유산의 현재와 미래'(김대현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소장)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청암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상에 이병열씨

호남이 낳은 명고수 청암 김성권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불교방송이 올해로 여섯 번째 주최한 청암전국고수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상이 주어지는 명고부 대상에는 이병열씨,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 학생부 대상에는 임승준군(전주예술고 3년)이 수상했다.

부문별 수상자 명단
◇명고부=▲대상 이병열 ▲최우수상

최원형 ▲우수상 추재형 ◇학생부 ▲대상 임승준 ▲최우수상 박상훈 ▲우수상 장의정 ◇일반부 ▲대상 이진수 ▲최우수상 서근원 ▲우수상 이순자 ◇청장년부 ▲대상 정해숙 ▲최우수상 마재영 ▲우수상 정다운 ◇임문부=▲대상 김금남 ▲최우수상 장미래 ▲우수상 엄규홍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J Hellovision UHD TV. Features a woman pointing at a large TV screen showing a cityscape. Text includes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가입문의 1855-0000', and 'hello' logo. Lists features like 24h UHD 전용 채널, UHD VOD 시청,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and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